

# 중풍 후 우울증의 변증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최산호 · 임형문<sup>1</sup> · 오재건 · 임진영<sup>2</sup> · 강형원<sup>3</sup> · 김윤식<sup>4</sup> · 한창호<sup>5</sup> · 이 인<sup>6</sup> · 문상관<sup>7</sup> · 윤현자<sup>8</sup> · 성강경 · 이상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1: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2: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양방재활의학과, 3: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4: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5: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6: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7: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8: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 Standard Pattern Identifications for Post Stroke Depression by Delphi Method

San Ho Choi, Hyung Moon Rhim<sup>1</sup>, Jae Gun Oh, Jin Yung Rhim<sup>2</sup>, Hyung Won Kang<sup>3</sup>, Yun Sik Kim<sup>4</sup>, Chang Ho Han<sup>5</sup>, In Lee<sup>6</sup>, Sang Kwan Moon<sup>7</sup>, Henja Yun<sup>8</sup>, Kang Kyung Sung, Sang Kwan Le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1: Department of Psychology, College of Social Science, Chonnam University,*

*2: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3: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4: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5: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6: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Pusan University,*

*7: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8: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Prescrip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The goal of current study is to make a standard pattern identification for post stroke depression using a delphi method. Finally, ten experts of oriental medicine, especially of stroke or depression, participated in Dephi examination. At the first meeting, experts conducted free discussion and determined to use the previous published questionnaires of Deficiency-Excess identification and Cold-Heat identification. From the second round, experts participated in evaluating and correcting the questionnaire by email. New seven questions were added to the questionnaire of Deficiency-Excess identification through the second round. Finally, the standard pattern identification of Cold-Heat or Deficiency-Excess is composed 20 questions and 11 questions, respectively. These pattern identifications for post stroke depression will contribute to research and treatment of oriental medicine.

Key words : Post Stroke Depression, Deficiency-Excess identification, Cold-Heat identification, Delphi Method

### 서 론

뇌졸중 후 기분장애는 1900년 초부터 기술되어 왔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울증, 불안, 무감동, 조증, 감정조절장애, 정신장애 등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 후 우울증(Post Stroke Depression, PSD)<sup>1)</sup>인데, ICD-10 분류상 FO6(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의 F06.3(Organic mood disorders)에 해당된다. PSD는 뇌졸중 발생 후 3개월 후에

33-70%<sup>2)</sup>까지 발생하는 고빈도 질환으로 주 증상은 자율신경불안 증상, 불안한 예감, 아침 우울, 체중 감소, 지연된 수면, 주관적 무력감, 이른 기상, 성욕 감퇴 등이 대표적이다<sup>3)</sup>. 또한 PSD는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을 반영하는 데 있어 강력한 예측인자<sup>4,5)</sup>이며, 뇌졸중에 의한 기능 장애<sup>6,9)</sup>, 인지 손상<sup>10)</sup>, 재활 상태<sup>11-14)</sup>에 악영향을 주고, 직장 복귀<sup>15)</sup> 및 기능적 회복<sup>16)</sup>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PSD를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우울증 평가도구가 사용되었지만 특성이 상이하여 측정개념의 구성과 변별진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sup>17)</sup>. 또한 PSD 치료를 위해 다양한 항우울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개선효과가 크지 않고 도리어 구역, 구토, 변비, 설사, 어지러움, 두통, 불면, 체중증가, 성기능장애 등<sup>18)</sup>

\* 교신저자 : 이상관, 광주시 남구 주월동 543-8,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 E-mail : sklee@wonkwang.ac.kr, · Tel : 062-670-6406

· 접수 : 2012/03/20 · 수정 : 2012/04/27 · 채택 : 2012/06/13

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PSD에 대한 항우울제의 미비한 효과를 대체하거나 항우울제의 부작용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방치료를 사용하는 연구<sup>19)</sup>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PSD의 한방치료를 위해서는 PSD에 대한 한의 변증안이 필요한데, 표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PSD에 대한 변증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풍 후 우울증의 변증안을 평가하는 질문지를 만들기 위해 한의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 번의 델파이 조사<sup>20)</sup>를 실시하였다. 초기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라고 함은 뇌졸중과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나 우울증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한의대 교수 및 한의사들을 지칭한다. 11명의 전문가들은 한의사 5명(50%),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10%), 한방내과 전문의 4명(40%) 등으로 구성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5명, 2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6명, 3차, 4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각각 10명이었다.

### 2.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변증에 관한 문헌탐색과 1, 2, 3, 4차 델파이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전문가를 선정하여 본 연구 참여를 요청하였고, 1차 모임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자유 개방형 설문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체하였다. 이후 취합된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델파이 조사 방법을 선정하였다.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기존 유사연구에서 사용된 寒熱 辨證 설문지와 虛實 辨證 설문지<sup>21,22)</sup>를 변형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는 寒證에 관련된 설문지와 熱證에 관련된 설문지, 虛證에 관련된 설문지와 實證에 관련된 설문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델파이 조사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기초통계분석한 후 2차 델파이는 寒證과 熱證이, 虛證과 實證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하나의 설문지로 통합하였다. 각 증상에 대한 정도는 10점 리커트 형식으로 寒熱을 평정하였고 좌우측 끝은 각각 寒證과 熱證의 최극단점에 해당된다. 虛實 또한 리커트 형식으로 평정하였다. 3차 델파이는 2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해당 문항과 함께 제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와 동일하게 寒證과 熱證을 좌우측 최극단점으로 하여 10점 리커트 형식으로 평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까지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초 통계 결과(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를 각 문항에 표시하여 적합도를 평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고 전문가에게 최종적(제4차)인 의견을 물었다.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적합도 판정결과를 토대로 최종 설문문항을 결정하였다. 1, 2, 3, 4차 델파이 조사 시

설문지와 응답지는 전자메일의 파일로 주고받았다.

Table 1. Outline of Delphi Method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11년 10월 ~ 2012년 2월 25일
조사내용	1차 조사 1. 寒證과 熱證을 진단하는 질문 각 12문항 2. 虛證과 實證을 진단하는 질문 각 9문항
	2차 조사 1. 寒證과 熱證을 진단하는 질문 24문항 2. 虛證과 實證을 진단하는 질문 18문항에 7문항 추가(전문가의견 반영)
	3차 조사 1. 寒證과 熱證을 진단하는 질문 24문항 2. 虛證과 實證을 진단하는 질문 23문항(2차 질문에 2문항 삭제)
	4차 조사 1. 寒證과 熱證을 진단하는 질문 24문항에 대한 적합도 평가 2. 虛證과 實證을 진단하는 질문 23문항에 대한 적합도 평가 3. 2차에서 추가된 7개 문항에 대한 寒熱/虛實 辨證 구분 평가
응답자 수	1차 조사 : 5명 2차 조사 : 6명 (1차와 중복 응답 4명 포함) 3차 조사 : 10명 (1차와 중복응답 1명, 2차와 중복응답 2명, 1, 2차 모두 중복응답 3명 포함) 4차 조사 : 10명 (3차 조사와 동일)

## 결 과

###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 寒熱 辨證 설문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寒證과 관련된 12문항과 熱證과 관련된 12문항에 대해서 5점 리커트 척도(Lickert scale)로 문항을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寒證과 熱證에 가깝다. 문항 평균이 4점 이상인 문항은 寒證관련 설문지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문항이었고, 熱證관련 설문지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2번 문항이었다. 평균 3점 이하의 문항은 寒證 9번 문항으로 평균 2.4점, 중위수 2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First Cold-Heat Questionnaire

寒熱문항(1-12번 寒證, 13-24번 熱證)	사례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몸이 으슬으슬 춥고 떨린 증상이 있다.	5	4.40	4.00	.548	4	5
2. 찬 바람이나 찬 기운, 추운 곳이 싫다.	5	4.40	4.00	.548	4	5
3.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다.	5	4.60	5.00	.548	4	5
4. 배가 전보다 차갑고 서늘하다.	5	4.00	4.00	.707	3	5
5. 손발이 전보다 더 시리거나 차갑다.	5	4.40	4.00	.548	4	5
6. 시립고 차가운 느낌의 통증이 있다.	5	3.20	3.00	.837	2	4
7.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5	4.20	4.00	.447	4	5
8. 얼굴이 전보다 창백해졌다.	5	3.20	3.00	.837	2	4
9. 물을 마시기가 싫다.	5	2.40	2.00	.548	2	3
10. 소변이 더 맑고 투명해졌다.	5	3.20	3.00	.447	3	4
11. 대변이 더 묽어졌다.	5	3.60	4.00	.548	3	4
12. 묽고 투명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	5	3.60	3.00	.894	3	5
13. 가끔 너무 더워서 이불을 안 덮고 잔다.	5	4.20	4.00	.447	4	5
14. 시원하고 서늘한 기운이나 자극이 좋다.	5	3.80	4.00	.447	3	4

15. 차가운 기운이나 서늘한 온도가 좋다.	5	4.00	4.00	.707	3	5
16. 항상 물을 마시고 싶다.	5	3.40	4.00	.894	2	4
17. 손발바닥이 뜨겁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	5	4.20	4.00	.447	4	5
18. 뜨겁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다.	5	3.20	3.00	.837	2	4
19. 통증 부위를 차갑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5	4.20	4.00	.447	4	5
20. 얼굴이 전보다 붉어졌다.	5	4.00	4.00	.000	4	4
21. 눈이 잘 충혈되거나 붉어지곤 한다.	5	4.40	4.00	.548	4	5
22. 소변 색깔이 더 진해졌다.	5	3.80	4.00	.447	3	4
23. 대변이 더 건조하거나 딱딱해졌다.	5	3.80	4.00	.447	3	4
24. 누렇거나 찌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	5	4.00	4.00	.000	4	4

2) 虛實 辨證 설문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虛證과 관련된 9문항과 實證과 관련된 9문항에 대해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문항을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寒證과 熱證에 가깝다. 문항 평균이 4점이상인 문항은 虛證관련 설문지에서 1번, 4번, 5번 문항이었고, 實證관련 설문지에서는 7번 문항이었다. 평균 3점 미만인 문항은 虛證 3번, 8번, 實證 6번, 8번, 9번 문항이었다. 그 중 제일 낮은 평균 점수 문항은 실증 9번으로 평균 1.8점, 중위수 2이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First Deficiency-Excess Questionnaire

	N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허1. 평소 감기 등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	5	4.40	4.00	.548	4	5
허2.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과로를 많이 한다.	5	3.80	4.00	1.095	2	5
허3. 통증 부위를 어루만지면 호전된다.	5	2.60	3.00	.548	2	3
허4. 최근 쉽게 피곤해지거나 쉽게 지친다.	5	4.80	5.00	.447	4	5
허5. 얼굴이 창백해지고 생기가 없어진 것 같다.	5	4.40	4.00	.548	4	5
허6. 최근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5	3.20	3.00	.837	2	4
허7. 목소리, 숨소리가 작아지고 약해졌다.	5	3.60	4.00	.894	2	4
허8. 가끔 대소변을 지리거나 참기 힘들다.	5	2.60	3.00	1.140	1	4
허9. 최근 식은땀이 저절로 나곤 한다.	5	3.80	4.00	1.095	2	5
실1. 감기 등 잔병치레를 거의 한 적이 없다.	5	3.80	4.00	.837	3	5
실2. 아프기 전에는 체력이 좋은 편이었다.	5	3.80	4.00	.447	3	4
실3. 현재 병이 발생한지 일주일일이 넘지 않았다.	5	3.40	4.00	.894	2	4
실4. 현재의 병이 증상이 매우 뚜렷하다.	5	3.00	3.00	.707	2	4
실5. 통증 부위를 만지거나 누르면 더 불편하다.	5	3.80	4.00	.837	3	5
실6. 최근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다.	5	2.80	3.00	.447	2	3
실7. 최근 가슴이 막힌 듯 답답한 느낌이 있다.	5	4.00	4.00	.000	4	4
실8. 가끔 대소변을 지리거나 참기 힘들다.	5	2.00	2.00	.707	1	3
실9. 최근 식은땀이 저절로 나곤 한다.	5	1.80	2.00	.447	1	2

3) 전문가 의견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寒證과 熱證의 설문항목이 매우 유사하고 寒證과 熱證은 연속선상에서 많고 적음의 차이만 반영하므로 寒證의 최고 평점점수를 제일 좌측에 熱證의 최고 평점점수를 제일 우측으로 한 10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만들었다.

2. 2차 델파이 조사결과

1) 寒熱 辨證 설문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寒證과 熱證을 연속선상으로 10점 만점 리커트 점수로 평가하였다. 1점에 가까울수록 寒證과 관련이 깊은 문항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熱證과 관련이 깊은 문항이다. 2차 조사는 1차 질문지 문항 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문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寒熱 辨證 질문은 1차 설문지 24문항에 추가된 질문이 없었다. 寒熱을 구분하기에 상대적으로 애매한 중간 점수 구간(4-6점)에 있는 문항은 9번, 10번, 11번 문항이었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Second Cold-Heat Questionnaire

	N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1. 몸이 으슬으슬 춥고 떨린 증상이 있다.	6	2.17	1.50	1.602	1	5
2. 찬 바람이나 찬 기운, 추운 곳이 싫다.	6	1.83	2.00	.753	1	3
3.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다.	6	2.17	2.00	.753	1	3
4. 배가 전보다 차갑고 서늘하다.	6	2.83	3.00	.408	2	3
5. 손발이 전보다 더 시리거나 차갑다.	6	3.17	3.00	.753	2	4
6. 시림과 차가운 느낌의 통증이 있다.	6	3.33	3.50	.816	2	4
7.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6	2.67	2.00	1.506	1	5
8. 얼굴이 전보다 창백해졌다.	6	3.83	3.50	.983	3	5
9. 물을 마시기가 싫다.	6	4.50	4.50	.548	4	5
10. 소변이 더 맑고 투명해졌다.	6	4.33	4.50	.816	3	5
11. 대변이 더 묽어졌다.	6	4.17	4.00	.753	3	5
12. 묽고 투명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	6	3.17	3.00	.753	2	4
13. 가끔 너무 더워서 이불을 안 덮고 잔다.	6	9.00	9.50	1.265	7	10
14. 시원하고 서늘한 기운이나 자극이 좋다.	6	8.67	9.00	1.033	7	10
15. 차가운 기운이나 서늘한 온도가 좋다.	6	8.67	9.00	1.033	7	10
16. 항상 물을 마시고 싶다.	6	7.50	7.50	1.049	6	9
17. 손발바닥이 뜨겁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	6	8.50	8.50	1.049	7	10
18. 뜨겁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다.	6	8.50	8.50	1.049	7	10
19. 통증 부위를 차갑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6	8.83	9.00	.408	8	9
20. 얼굴이 전보다 붉어졌다.	6	8.67	9.00	.516	8	9
21. 눈이 잘 충혈되거나 붉어지곤 한다.	6	8.33	8.00	1.033	7	10
22. 소변 색깔이 더 진해졌다.	6	7.67	7.50	1.633	6	10
23. 대변이 더 건조하거나 딱딱해졌다.	6	7.50	8.00	1.225	6	9
24. 누렇거나 찌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	6	8.17	8.00	.753	7	9

2) 虛實 辨證 설문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寒證과 熱證을 연속선상으로 10점 만점 리커트 점수로 평가하였다. 1점에 가까울수록 虛證과 관련이 깊은 문항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實證과 관련이 깊은 문항이다. 2차 조사는 1차 질문지 문항 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문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조사에 포함된 문항 중 16번 문항과 18번 문항이 각각 8번, 9번 문항과 내용이 겹치거나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명의 전문가가 새로운 7문항(虛實 辨證 19-25번 문항)을 추가 하였다. 虛實을 구분하기에 상대적으로 애매한 중간 점수 구간(4-6점)에 있는 문항은 3번, 8번, 16번, 19번, 20번, 22번, 24번 문항이었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Second Deficiency-Excess Questionnaire

	N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1. 평소 감기 등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	6	1.83	2.00	.753	1	3
2.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과로를 많이 한다.	6	3.83	4.00	1.169	2	5
3. 통증 부위를 어루만지면 호전된다.	6	4.00	4.00	1.095	2	5
4. 최근 쉽게 피곤해지거나 쉽게 지친다.	6	1.50	1.00	.837	1	3
5. 얼굴이 창백해지고 생기가 없어진 것 같다.	6	2.33	2.50	.816	1	3
6. 최근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6	3.50	3.50	1.378	2	5
7. 목소리, 숨소리가 작아지고 약해졌다.	6	2.67	2.50	.816	2	4
8. 가끔 대소변을 지리거나 참기 힘들다.	6	4.33	4.00	.516	4	5
9. 최근 식은땀이 저절로 나곤 한다.	6	2.33	2.50	.816	1	3
10. 감기 등 잔병치레를 거의 한 적이 없다.	6	8.67	9.00	1.366	6	10
11. 아프기 전에는 체력이 좋은 편이었다.	6	7.67	7.50	1.211	6	9
12. 현재 병이 발생하지 일주일 이 넘지 않았다.	6	7.33	7.00	1.033	6	9
13. 현재의 병이 증상이 매우 뚜렷하다.	5	8.40	9.00	.894	7	9
14. 통증 부위를 만지거나 누르면 더 불편하다.	6	7.17	7.00	1.329	6	9
15. 최근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다.	6	6.50	6.00	.837	6	8
16. 가끔 대소변을 지리거나 참기 힘들다.	5	4.40	4.00	.894	4	6
17. 손발바닥이 뜨겁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	6	6.83	7.00	.408	6	7
18. 최근 식은땀이 저절로 나곤 한다.	4	3.25	3.00	2.062	1	6
19. 한숨을 자주 쉰다.	2	5.00	5.00	2.828	3	7
20.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2	4.00	4.00	1.414	3	5
21. 심리적으로 억눌린 느낌이 있다.	2	8.00	8.00	1.414	7	9
22. 화를 쉽게 내거나 짜증이 많다.	2	5.50	5.50	3.536	3	8
23.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안감이 느껴진다.	2	2.50	2.50	2.121	1	4
24. 식욕이 없다.	2	6.00	6.00	2.828	4	8
25. 입이 마르고 쓰다.	1	9.00	9.00		9	9

3. 3차 델파이 조사결과

1) 寒熱 辨證 설문

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차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통계치를 각 문항에 함께 표시하여 다른 전문가들의 평정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하였고, 조사 방식은 2차와 동일하였다. 寒證과 관련해서는 평균이 1점에 가까울수록 관련도가 높고, 熱證과 관련해서는 평균이 10점에 가까울수록 관련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3차 조사결과 寒熱을 구분하기에 상대적으로 애매한 중간 점수 구간(4-6점)에 있는 문항은 9번, 10번, 11번이었다. 寒熱 辨證과 관련된 24문항에 대한 3차 평정 기술통계치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1-3차에 걸쳐 실시한 문항 전반에 대한 평정결과(10점 만점 환산 평균)는 (Fig. 1)에 제시되어 있다. ㉠은 熱證에 가깝고, ㉡는 寒證에 가깝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Third Cold-Heat Questionnaire

	N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1. 몸이 으슬으슬 춥고 떨린 증상이 있다.	10	2.10	2.00	1.101	1	4
2. 찬 바람이나 찬 기운, 추운 곳이 싫다.	10	1.90	2.00	.876	1	3
3.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다.	10	2.20	2.00	1.229	1	4
4. 배가 전보다 차갑고 서늘하다.	10	2.60	2.50	.699	2	4
5. 손발이 전보다 더 시리거나 차갑다.	10	2.70	2.00	1.059	2	5
6. 시립고 차가운 느낌의 통증이 있다.	10	2.80	3.00	.422	2	3
7.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10	2.50	3.00	.707	1	3
8. 얼굴이 전보다 창백해졌다.	10	3.60	3.50	.699	3	5
9. 물을 마시기가 싫다.	10	4.40	5.00	.966	2	5
10. 소변이 더 맑고 투명해졌다.	10	4.00	4.00	.943	2	5
11. 대변이 더 묽어졌다.	10	4.10	4.00	.876	2	5
12. 묽고 투명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	10	3.40	3.00	.966	2	5
13. 가끔 너무 더워서 이불을 안 덮고 잔다.	10	8.50	8.00	.972	7	10
14. 시원하고 서늘한 기운이나 자극이 좋다.	10	8.70	8.50	.823	8	10
15. 차가운 기운이나 서늘한 온도가 좋다.	10	8.90	9.00	1.101	7	10
16. 항상 물을 마시고 싶다.	10	7.50	7.50	1.179	6	10
17. 손발바닥이 뜨겁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	10	8.00	8.00	1.054	6	9
18. 뜨겁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다.	10	8.10	8.00	.738	7	9
19. 통증 부위를 차갑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10	8.60	9.00	.699	7	9
20. 얼굴이 전보다 붉어졌다.	10	8.40	8.50	.699	7	9
21. 눈이 잘 충혈되거나 붉어 지곤 한다.	10	8.20	8.00	.632	7	9
22. 소변 색깔이 더 진해졌다.	10	7.30	7.00	.823	6	9
23. 대변이 더 건조하거나 딱딱해졌다.	10	7.80	7.50	1.033	7	10
24. 누렇거나 찌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	10	8.20	8.00	.632	7	9

2) 虛實 辨證 설문

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차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통계치를 각 문항에 함께 표시하여 다른 전문가들의 평정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하였고, 조사 방식은 2차와 동일하였다. 虛證과 관련된

서는 평균이 1점에 가까울수록 관련도가 높고, 實證과 관련해서는 평균이 10점에 가까울수록 관련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차 조사 결과 중복 질문 2개 문항(16번, 18번)을 삭제하고, 7개 문항(19번-25번)을 추가하였다. 3차 조사결과 虛實을 구분하기에 상대적으로 애매한 중간 점수 구간(4-6점)에 있는 문항은 8번, 23번, 25번이었다. 虛實 辨證 관련 문항에 대한 3차 평정 기술통계치는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1-3차에 걸쳐 실시한 문항 전반에 대한 평정결과(10점 만점 환산 평균)는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①은 추가된 문항이고, ②는 實證에 가까우며, ③은 虛證에 가깝다.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Third Deficiency-Excess Questionnaire

	N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1. 평소 감기 등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	10	2.20	2.00	.422	2	3
2. 기운이 다 빠질 정도로 과로를 많이 한다.	10	3.60	3.00	.843	3	5
3. 통증 부위를 어루만지면 호전된다.	10	3.70	4.00	.823	2	5
4. 최근 쉽게 피곤해지거나 쉽게 지친다.	10	1.40	1.00	.516	1	2
5. 얼굴이 창백해지고 생기가 없어진 것 같다.	10	2.30	2.00	.483	2	3
6. 최근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10	3.00	3.00	.471	2	4
7. 목소리, 숨소리가 작아지고 약해졌다.	10	2.40	2.00	.516	2	3
8. 가끔 대소변을 지리거나 참기 힘들다.	10	4.00	4.00	1.155	1	5
9. 최근 식은땀이 저절로 나곤 한다.	10	2.10	2.00	.316	2	3
10. 감기 등 잔병치레를 거의 한 적이 없다.	10	8.30	8.50	.949	6	9
11. 아프기 전에는 체력이 좋은 편이었다.	10	8.00	8.00	1.054	6	10
12. 현재 병이 발생한지 일주일 이 넘지 않았다.	10	7.30	7.00	.949	6	9
13. 현재의 병이 증상이 매우 뚜렷하다.	10	8.00	8.50	1.333	5	9
14. 통증 부위를 만지거나 누르면 더 불편하다.	10	7.90	8.00	.738	7	9
15. 최근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다.	10	6.80	6.00	1.033	6	8
16. 최근 가슴이 막힌 듯 답답한 느낌이 있다.	0	중복으로 인정되어 삭제				
17. 손발바닥이 뜨겁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	10	7.20	7.00	.919	6	9
18. 최근 식은땀이 저절로 나곤 한다.	0	중복으로 인정되어 삭제				
19. 한숨을 자주 쉽다.	10	3.70	3.00	1.059	3	6
20.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10	2.70	3.00	.675	2	4
21. 심리적으로 억눌린 느낌이 있다.	10	4.70	5.00	1.636	2	7
22. 화를 쉽게 내거나 짜증이 많다.	10	7.20	7.50	1.229	5	9
23.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안감이 느껴진다.	10	5.30	5.00	1.567	3	8
24. 식욕이 없다.	10	3.00	3.00	.816	2	4
25. 입이 마르고 쓰다.	10	5.90	6.00	1.595	2	8

4. 4차 델파이 조사결과

1) 寒熱 辨證 설문

4차 델파이 조사는 1-3차에서 실시한 각 문항의 평정에 대한

기초 통계치(Figure 1)를 문항별로 제시하고, 각 문항이 寒熱 辨證을 진단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물었다. 전문가들의 40%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문항은 최종 설문지에서 삭제하고, 60% 이상이 적합하다고 평가한 문항을 최종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寒熱 辨證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문항은 총 20 문항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 12번, 13번, 14번, 15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이다.

Table 8. Final Determinations whether Each Question Could Be Accepted for Cold-Heats Pattern Identifications

寒熱문항	적합(%)	부적합(%)	최종문항
1. 몸이 으슬으슬 춥고 떨린 증상이 있다.	8(80)	2(20)	선택
2. 찬 바람이나 찬 기운, 추운 곳이 싫다.	9(90)	1(10)	선택
3.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다.	10(100)		선택
4. 배가 전보다 차갑고 서늘하다.	10(100)		선택
5. 손발이 전보다 더 시리거나 차갑다.	10(100)		선택
6. 시립고 차가운 느낌의 통증이 있다.	10(100)		선택
7.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9(90)	1(10)	선택
8. 얼굴이 전보다 창백해졌다.	4(40)	6(60)	비선택
9. 물을 마시기가 싫다.	9(90)	1(10)	선택
10. 소변이 더 맑고 투명해졌다.	5(50)	5(50)	비선택
11. 대변이 더 묽어졌다.	6(60)	4(40)	비선택
12. 묽고 투명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	8(80)	2(20)	선택
13. 가끔 너무 더워서 이불을 안 덮고 잔다.	10(100)		선택
14. 시원하고 서늘한 기운이나 자극이 좋다.	9(90)	1(10)	선택
15. 차가운 기운이나 서늘한 온도가 좋다.	10(100)		선택
16. 항상 물을 마시고 싶다.	5(50)	5(50)	비선택
17. 손발바닥이 뜨겁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	10(100)		선택
18. 뜨겁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다.	10(100)		선택
19. 통증 부위를 차갑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10(100)		선택
20. 얼굴이 전보다 붉어졌다.	10(100)		선택
21. 눈이 잘 충혈되거나 붉어지곤 한다.	10(100)		선택
22. 소변 색깔이 더 진해졌다.	7(70)	3(30)	선택
23. 대변이 더 건조하거나 딱딱해졌다.	7(70)	3(30)	선택
24. 누렇거나 끈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	9(90)	1(10)	선택

2) 虛實 辨證 설문

4차 델파이 조사는 1-3차에서 실시한 적합도 평가에 대한 기초통계치(평균, 표준편차, Fig. 1)를 문항별로 제시하고, 각 문항이 虛實 辨證을 진단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물었다. 전문가들의 40%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문항은 최종 설문지에서 삭제하고, 60% 이상이 적합하다고 평가한 문항을 최종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특히, 19번-24번 문항의 경우 각 문항이 寒熱 辨證을 진단하는데 적합한 문항인지, 虛實 辨證을 진단하는데 적합한 문항인지 물었다. 60% 이상의 전문가가 19-24번 문항은 虛實 辨證을 진단하는데 적합하다고 평가하였으며, 25번 문항은 寒熱 辨證을 진단하는데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虛實 辨證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1번, 4번, 5번, 7번, 9번, 10번, 11번, 13번, 14번, 20번, 24번이다.

Table 9. Final Determinations whether Each Question Could Be Accepted for Deficiency-Excess Pattern Identifications

虛實문항	적합(%)	부적합(%)	무응답	최종문항
1. 평소 감기 등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	10(100)			선택

2. 가운데 다 뼈질 정도로 과로를 많이 한다.	3(30)	7(70)	비선택
3. 통증 부위를 어루만지면 호전된다.	4(40.0)	6(60)	비선택
4. 최근 쉽게 피곤해지거나 쉽게 지친다.	10(100.0)		선택
5. 얼굴이 창백해지고 생기가 없어진 것 같다.	10(100.0)		선택
6. 최근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6(60.0)	4(40)	비선택
7. 목소리, 숨소리가 작아지고 약해졌다.	10(100.0)		선택
8. 가끔 대소변을 지러거나 참기 힘들다.	3(30.0)	7(70)	비선택
9. 최근 식은땀이 저절로 나곤 한다.	10(100.0)		선택
10. 감기 등 잔병치레를 거의 한 적이 없다.	10(100.0)		선택
11. 아프기 전에는 체력이 좋은 편이었다.	8(80)	2(20)	선택
12. 현재 병이 발생하자 일주일 이상 넘지 않았다.	5(50)	5(50)	비선택
13. 현재의 병이 증상이 매우 뚜렷하다.	9(90)	1(10)	선택
14. 통증 부위를 만지거나 누르면 더 불편하다.	7(70)	3(30)	선택
15. 최근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다.	4(40)	9(90)	비선택
16. 문제 생략			
17. 손발바닥이 뜨겁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	5(50)	5(50)	비선택
18. 문제 생략			
19. 한숨을 자주 쉰다.	6(60)	4(40)	비선택
20.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9(90)	1(10)	선택
21. 심리적으로 억눌린 느낌이 있다.	2(20)	7(70)	4(40) 비선택
22. 화를 쉽게 내거나 짜증이 많다.	3(30)	6(60)	4(40) 비선택
23.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안감이 느껴진다.	3(30)	6(60)	4(40) 비선택
24. 식욕이 없다.	8(80)	2(20)	선택
25. 입이 마르고 쓰다.	3(30)	7(70)	비선택

Table 10. Decisions which Pattern Identification New Seven Questions Are Added to

	寒熱(%)	虛實(%)	무응답(%)
19. 한숨을 자주 쉰다.	9(90)		1(10)
20.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10(100)		
21. 심리적으로 억눌린 느낌이 있다.	9(90)		1(10)
22. 화를 쉽게 내거나 짜증이 많다.	2(20)	6(60)	2(20)
23.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안감이 느껴진다.	9(90)		1(10)
24. 식욕이 없다.		10(100)	
25. 입이 마르고 쓰다.	7(70)	2(20)	1(10)

5. 최종 선정된 寒熱/虛實 문항

4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40%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문항은 최종적으로 제거하고, 전문가 60% 이상이 적합하다고 평가한 문항만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변증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寒熱 辨證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20개의 문항이 선택되었으며(Table 11), 虛實 辨證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11개의 문항이 선택되었다(Table 12).

Table 11. Final Selected Questions for Cold-Heat Pattern Identifications

寒熱문항	적합(%)	부적합(%)
1. 몸이 으슬으슬 춥고 떨린 증상이 있다.	8(80)	2(20)
2. 찬 바람이나 찬 기운, 추운 곳이 싫다.	9(90)	1(10)

3.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다.	10(100)	
4. 배가 전보다 차갑고 서늘하다.	10(100)	
5. 손발이 전보다 더 시리거나 차갑다.	10(100)	
6. 시립고 차가운 느낌의 통증이 있다.	10(100)	
7.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9(90)	1(10)
9. 물을 마시기가 싫다.	9(90)	1(10)
12. 뭉고 투명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	8(80)	2(20)
13. 가끔 너무 더워서 이불을 안 덮고 잔다.	10(100)	
14. 시원하고 서늘한 기운이나 자극이 좋다.	9(90)	1(10)
15. 차가운 기운이나 서늘한 온도가 좋다.	10(100)	
17. 손발바닥이 뜨겁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	10(100)	
18. 뜨겁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다.	10(100)	
19. 통증 부위를 차갑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10(100)	
20. 얼굴이 전보다 붉어졌다.	10(100)	
21. 눈이 잘 충혈되거나 붉어지곤 한다.	10(100)	
22. 소변 색깔이 더 진해졌다.	7(70)	3(30)
23. 대변이 더 건조하거나 딱딱해졌다.	7(70)	3(30)
24. 누릴거나 찌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	9(90)	1(10)

Table 12. Final Selected Questions for Deficiency-Excess Identifications

虛實문항	적합	부적합	무응답
1. 평소 감기 등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	10(100)		
4. 최근 쉽게 피곤해지거나 쉽게 지친다.	10(100)		
5. 얼굴이 창백해지고 생기가 없어진 것 같다.	10(100)		
7. 목소리, 숨소리가 작아지고 약해졌다.	10(100)		
9. 최근 식은땀이 저절로 나곤 한다.	10(100)		
10. 감기 등 잔병치레를 거의 한 적이 없다.	10(100)		
11. 아프기 전에는 체력이 좋은 편이었다.	8(80)	2(20)	
13. 현재의 병이 증상이 매우 뚜렷하다.	9(90)	1(10)	
14. 통증 부위를 만지거나 누르면 더 불편하다.	7(70)	3(30)	
20.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9(90)	1(10)	
24. 식욕이 없다.	8(80)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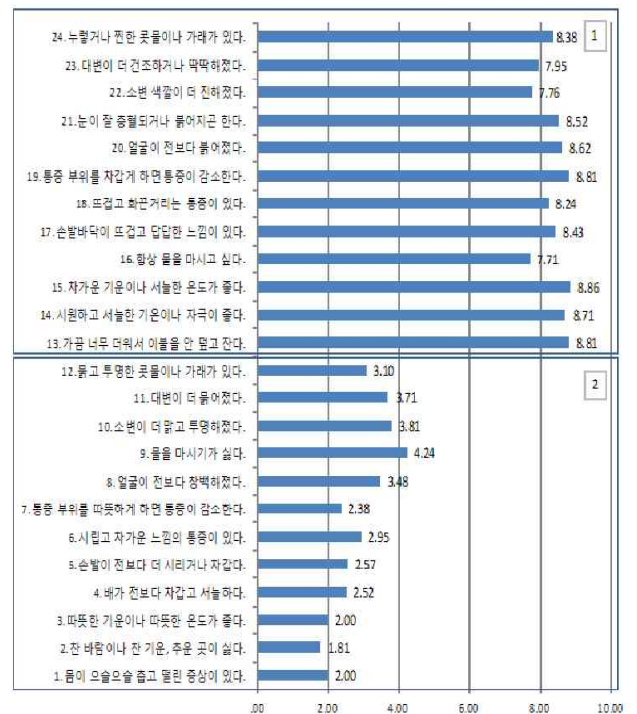


Fig. 1. Total means of all Cold-Heat Questions. The questions of ① or ② are related to heat pattern identifications or cold pattern identifications, respectiv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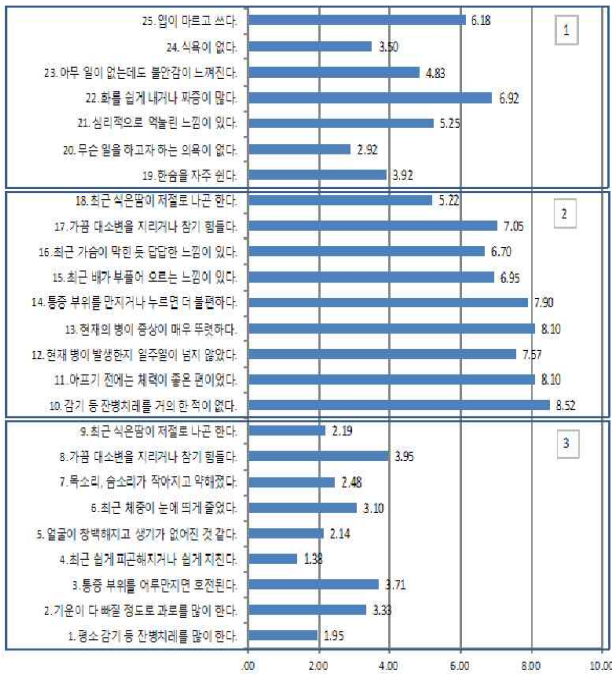


Fig. 2. Total means of all Deficiency-Excess Questions. The questions of [2] or [3] are related to deficiency pattern identifications or excess pattern identifications, respectively. The [1] is mean added questions.

## 고찰

뇌졸중 후 우울증(Post Stroke Depression, PSD)<sup>1)</sup>은 고빈도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졸중의 예후와 환자의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4,5)</sup>. 그러므로 PSD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만, 진단과 치료에 제한점이 있다. 왜냐하면, 치료약물로는 기존 항우울제를 사용하는데, 개선효과가 미비하고 도리어 다양한 부작용 등<sup>18)</sup>이 보고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PSD 진단을 위해서 기존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하는데, 전형적인 우울증 특성과 상이하여 변별진단이 어렵다<sup>17)</sup>. 최근에는 기존 항우울제와 우울진단 도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한방치료 연구<sup>19)</sup>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PSD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PSD에 대한 한의변증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변증은 八綱辨證, 氣血津液辨證, 臟腑辨證, 衛氣營血辨證, 三焦辨證 등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八綱辨證 중 寒熱虛實辨證을 기본으로 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八綱辨證은 모든 변증 체계에 기본적인 개념과 분석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변증방법이고<sup>23)</sup>, 둘째, 한국형 중풍 변증 표준안-II<sup>24)</sup>를 통해 火熱, 氣虛, 陰虛, 濕痰, 瘀血의 5개 변증을 선별되었고, 최근에는 瘀血이 제외되는 추세인데, 나머지 4개의 火熱, 氣虛, 陰虛, 濕痰 변증 중 火熱, 氣虛, 陰虛의 경우 寒熱과 虛實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풍 치료를 위한 변증과 중풍 후 발생하는 증상 치료를 위한 변증이 일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다른 변증 표준화 연구들<sup>21,25-30)</sup>에서도 八綱辨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다양한

질환의 변증안과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SD에 대한 변증안을 만들기 위해 寒熱과 虛實辨證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sup>20,21)</sup>에서는 寒과 熱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연구하였고, 虛와 實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寒과 熱은 증상의 다소 차이만 있을 뿐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설문지로 만들었으며, 虛와 實도 연속된 개념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설문지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설문지를 통합하는 과정 중에 문구는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을 묻는 질문들이 있었고 이는 차후 중복으로 간주되어 조사 및 분석에서 삭제되었다. 둘째, 3차와 4차 델파이 검사에서는 그때까지의 평정 결과를 통계치와 함께 제시하여 새로운 문항 평정 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셋째, 델파이 조사 중 전문가들이 새로 추가한 문항은 문항의 평정뿐만 아니라 PSD 변증 안에 적합하지 여부도 함께 평가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寒證에 관련된 설문지(12문항)와 熱證에 관련된 설문지(12문항), 虛證과 관련된 설문지(9문항), 實證과 관련된 설문지(9문항)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 문항을 5점 만점으로 평정하였다. 평정 평균이 3점미만인 문항은 寒證 9번, 虛證 3번, 虛證 8번, 實證 6번, 實證 8번, 實證 9번이었다. 낮은 평정결과는 설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차 델파이 조사에서 바로 삭제하지 않고 최종 델파이 조사까지 포함하였는데, 그 이유는 설문 형태가 바뀌면서 평정 결과가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2차 델파이 조사는 寒證과 熱證, 虛證과 實證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하나의 설문지로 통합하였다. 각 증상에 대한 정도는 10점 리커트 형식으로 寒熱, 虛實을 평정하였다. 寒熱 혹은 虛實을 연속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하나의 설문지로 만들면서 '가끔 대소변을 지리거나 참기 힘들다'와 '최근 식은땀이 저절로 나곤 한다' 등은 각각 중복된 문항이 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문항을 자유롭게 추가하도록 요청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결과 寒熱辨證 설문문에 추가된 문항은 없었고, 虛實辨證 설문문에서는 7개의 문항이 추가되어 3차 조사에 반영되었다. 각 문항의 평균이 4-6점 구간에 있는 경우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데, 寒熱辨證에서는 9번, 10번, 11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되었고, 虛實辨證에서는 3번, 8번, 16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虛實辨證 8번과 16번 문항은 동일한 의미이므로, 실제로는 虛實辨證 3번 '통증 부위를 어루만지면 호전된다'와 8번 '가끔 대소변을 지리거나 참기 힘들다'만이 여기에 해당되었지만, 평균(±표준편차)이 각각 4.0(±1.095), 4.33(±0.516)이므로 거의 虛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추가된 문항인 19번부터 25번 문항은 참여자가 2명 이하이므로 통계적 해석은 힘들고 3차 조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3차 델파이 조사는 2차 조사 결과 재구성된 문항을 평정하였다. 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차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 통계치를 각 문항에 표시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이 4-6점 구간에 있는 경우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데, 寒熱辨證과 관련해서는 9번, 10번, 11번 문항이, 虛實辨證과 관련해서는 8번, 23번, 25번 문항이 이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寒熱辨證에서 9번 '물

을 마시기가 싫다', 10번 '소변이 더 맑고 투명해졌다', 11번 '대변이 더 묽어졌다'는 평균(±표준편차)이 각각 4.40(±0.966), 4.33(±0.943), 4.10(±0.876)이므로 거의 寒證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虛實 辨證에서 3번 문항은 2차 조사 때보다 변별력이 더 개선되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고, 8번 문항만이 여기에 해당되었지만, 평균(±표준편차)이 4.00(±1.155)이므로 거의 虛證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차에서 3차까지 진행한 변별력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기초 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를 구했다.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평균 4-6점 구간에 있는 문항은 寒熱 辨證 설문에서는 9번 문항이었으며, 虛實 辨證 설문에서는 18번, 21번, 23번 문항이었다.

4차 델파이 조사는 1-3차에서 진행한 평정결과에 대한 기초 통계치(평균, 표준편차)를 각 문항에 표시해서 3차 조사에 참여한 10명의 전문가들에게 최종적으로 문항의 적합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虛實 辨證과 관련해서 2차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에 대해서 각각의 문항이 寒熱 辨證과 관련되는지, 虛實 辨證과 관련되는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4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40%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문항은 최종적으로 제거하고, 전문가 60% 이상이 적합하다고 평가한 문항만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증풍 후 우울증에 대한 辨證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寒熱 辨證과 관련해서 20개의 문항이 선택되었으며, 虛實 辨證과 관련해서는 11개의 문항이 선택되었다.

虛證 3번(虛實 辨證 3번), 虛證 8번(虛實 辨證 8번과 16번), 實證 6번(虛實 辨證 15번), 實證 8번(虛實 辨證 8번과 16번), 實證 9번(虛實 辨證 9번과 18번)은 1차 조사부터 변별력이 낮았고, 최종 적합도 관점에서도 뇌졸중 후 우울 변증에 부적합한 문항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4차례 걸친 조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寒證 9번(寒熱 辨證 9번) '물을 마시기가 싫다'는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 변별력이 다소 낮았지만, 최종 적합 관점에서는 뇌졸중 후 우울을 위한 변증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다. 이는 寒證과 熱證이 독립적으로 질문 될 때보다 하나의 설문지로 만들어지면서 그 문항의 의미와 상대적 위치가 보다 잘 판단 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평정 총 평균이 4-6점대에 해당되지 않았던 몇몇의 문항들이 최종적합도 평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이다. 이는 寒熱을 평정하거나 虛實을 평정하는 변별력은 있지만, 뇌졸중 후 우울 변증을 고려할 때는 최종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최종적인 부적합 판정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60% 미만으로 설정하였는데, 산술적인 판정기준인 50% 미만으로 선정한다면, 寒熱 辨證의 11번 '대변이 묽어졌다'는 寒證으로, 虛實 辨證의 6번 '최근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와 19번 '한숨을 자주 쉰다'는 虛證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다. 이는 차후 보다 많은 수의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각 문항에 부가치(weighting)를 부여하지 않고 모두 동등한 문항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임상 응용과 다소의 괴리를 보일 수 있다.

이는 추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소수의 참여로 인해 다소 왜곡되었거나 편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델파이 기법상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虛實문항 총 수가 寒熱 문항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몇 문항의 결과에 의해 虛實 辨證이 왜곡될 가능성이 寒熱 辨證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본 연구는 증풍 후 우울증에 대한 寒熱/虛實 辨證을 진단하는 객관적인 질문지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총 4차의 델파이 조사 및 최종 판정결과, 寒熱 辨證과 관련해서 20개의 문항이 선택되었고, 虛實 辨證과 관련해서는 11개의 문항이 선택되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寒熱 辨證 문항

몸이 으슬으슬 춥고 떨린 증상이 있다. 찬 바람이나 찬 기운, 추운 곳이 싫다.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다. 배가 전보다 차갑고 서늘하다. 손발이 전보다 더 시리거나 차갑다. 시럽고 차가운 느낌의 통증이 있다.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물을 마시기가 싫다. 맑고 투명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다. 가끔 너무 더워서 이불을 안 덮고 잔다. 시원하고 서늘한 기운이나 자극이 좋다. 차가운 기운이나 서늘한 온도가 좋다. 손발 바닥이 뜨겁고 답답한 느낌이 있다. 뜨겁고 화끈거리는 통증이 있다. 통증 부위를 차갑게 하면 통증이 감소한다. 얼굴이 전보다 붉어졌다. 눈이 잘 충혈되거나 붉어지곤 한다. 소변 색깔이 더 진해졌다. 대변이 더 건조하거나 딱딱해졌다. 누렁거나 찌꺼기나 가래가 있다.

### 2. 虛實 辨證 문항

평소 감기 등 잔병치레를 많이 한다. 최근 쉽게 피곤해지거나 쉽게 지친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생기가 없어진 것 같다. 목소리, 숨소리가 작아지고 약해졌다. 최근 식은땀이 저절로 나곤 한다. 감기 등 잔병치레를 거의 한 적이 없다. 아프기 전에는 체력이 좋은 편이었다. 현재의 병이 증상이 매우 뚜렷하다. 통증 부위를 만지거나 누르면 더 불편하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 식욕이 없다.

이상의 뇌졸중 후 우울에 대한 변증 문항들은 향후 뇌졸중 후 우울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과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과제고유번호 : B110010-2011-S01006012-3)

## 참고문헌

1. 김종성. 뇌졸중 후 발생하는 감정장애: 우울, 불안, 감정조절



- 장애, 분노조절장애, 그리고 피로. 대한신경과학회지 23(1):1-8, 2005.
2. Kauhanen, M.L., Korpelainen, J.T., Hitunen, P. Aphasia, depression, and non-verbal cognitive impairment in ischaemic stroke. Cerebrovasc Dis 10: 455-461, 2000.
  3. Pohjasvaara, T., Vataja, R., Leppavuori, A. Depression in an independent predictor of poor long-term functional outcome post-stroke. Eur J Neurol 8: 315-319, 2001.
  4. Kim, P., Warren, S., Madill, H. Quality of life of stroke survivors. Qual Life Res 8: 293-301, 1999.
  5. King, R.B. Quality of life after stroke. Stroke. 28: 1467-1472, 1996.
  6. Schwartz, J.A., Speed, N.M., Brunberg, J.A. Depression in stroke rehabilitation. Biol Psychiatry 33: 694-699, 1993.
  7. Ramasubbu, R., Robinson, R.G., Flint, A.J. Functional impairment associated with acute poststroke depression: the Stroke Data Band Study. J Neuropsychiatry Clin Neurosci 10: 26-33, 1998.
  8. Kotila, M., Numminen, H., Waltimo, O. Post-stroke depression and functional recovery in a population-based stroke register. The Finnstroke study. Eur J Neurol 6: 309-312, 1999.
  9. Pohjasvaara, T., Vataja, R., Leppavuori, A. Depression in an independent predictor of poor long-term functional outcome post-stroke. Eur J Neurol 8: 315-319, 2001.
  10. Kauhanen, M., Korpelainen, J.T., Hiltunen, P. Poststroke depression correlates with cognitive impairment and neurological deficits. Stroke 30: 1875-1880, 1999.
  11. Sinyor, D., Amato, P., Kaloupek, D.G. Post-stroke depression: relationships to functional impairment, coping strategies, and rehabilitation outcome. Stroke 17: 1102-1107, 1986.
  12. Paolucci, S., Antonucci, G., Pratesi, L. Poststroke depression and its role in rehabilitation of inpatients. Arch Phys Med Rehabil 80: 985-990, 1999.
  13. Pohjasvaara, T., Vataja, R., Leppavuori, A. Depression in an independent predictor of poor long-term functional outcome post-stroke. Eur J Neurol 8: 315-319, 2001.
  14. Gillen, R., Tennen, H., Mckee, T.E. Depressive symptoms and history of depression predict rehabilitation efficiency in stroke patients. Arch Phys Med Rehabil 82: 1645-1649, 2001.
  15. Neau, J.P., Ingrand, P., Mouille-Brachet, C. Functional recovery and social outcome after cerebral infarction in young adults. Cerebrosc Dis 8: 296-302, 1998.
  16. Chemerinski, E., Robinson, R.G., Kosier, J.T. Improved recovery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ssociated with remission of poststroke depression. Stroke 32: 113-117, 280-290, 2001.
  17. House, A., Dennis, M., Mogridge, L., Warlow, C., Hawton, K., Jones, L. Mood disorders in the year after first strok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8: 83-92, 1991.
  18. HealthDay News, "Study Questions 'Off-Label' Use of Antipsychotics," January 19, 2007. Available from: URL: <http://news.healingwell.com/index.php?p=news1&id=601162>
  19. 제준태, 이상관. 뇌졸중 후 우울증에 대한 황련해독탕 약침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대한약침학회지 13(2):67-73, 2010.
  20. 이종성.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2001.
  21. 유현희, 이해정, 장은수, 최선미, 이성근, 이시우. 한열 변증 설문지 개발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2(6):1410-1415, 2008.
  22. 유현희, 이해정, 장은수, 이시우, 이기상, 김종열. 허실 변증 설문지 개발 가능성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3(3):534-539, 2009.
  23. 한방병리학교재편찬위원회. 한방병리학. 서울, 한의문화사, 2001.
  24. 문승희, 강병갑, 안정조, 조현경, 유호룡, 설인찬, 김윤식. 한국형 중풍 변증 표준안 - II의 변증별 변증지표의 분포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2(2):487-496, 2008.
  25. 이인선, 이용태, 지규용, 김종원, 김규곤. 한방진단시스템과 진단의 간의 진단일치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2(6):1359-1367, 2008.
  26. 김숙경, 박영배. 寒熱辨證說問紙開發. 대한한의진단학회지 7(1):64-75, 2003.
  27. 오명택, 엄현섭, 김종원, 이인선, 지규용. 설문지 분석법에 의한 담 혈어 한 열 습 조 병기의 표준 증상 및 남녀차이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2):1738-1769, 2007.
  28. 권오순, 김정은, 이재왕, 서창운, 한현영, 홍상훈. 한방건강검진에서 한열허실 변증 진단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3(1):180-185, 2009.
  29. 이상재, 박종배, 이송실, 김광호. 陰虛證측정도구의 개발 및 신뢰도 타당도 검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8(2):376-380, 2004.
  30. 이인선, 조혜숙, 윤현민, 정경근, 김규곤, 박지은, 최선미. 한방진단시스템 DSOM의 진단결과에 따른 월경통 환자의 허실진단에 대한 연구. 대한약침학회지 10(1):137-156, 2007.